

해남군, 기후 대응·탄소중립 선도 국가 시설 조성 본격화

기후변화대응센터·탄소중립 에듀센터
총 110억원 국비 최종 반영 내년 첫 삽
2028년 가동...농어촌 수도 위상 강화
농식품 컨트롤 타워·환경 체험 산실로

해남군에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 할 국가 핵심 거점 시설 조성이 본격화된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달 초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비 50억원과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비 60억원 등 총 110억원의 국비가 최종 반영돼 두 핵심 시설이 내년엔 나란히 첫 삽을 뜨게 됐다.

우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총사업비 59억원원을 투입해 삼산면 평활리 일원 3ha 부지에

조성된다.

해당 센터는 우리나라 농식품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기후변화 대응 국가 전략 수립부터 데이터 관리, 연구 개발(R&D), 민간 실증을 통한 탄소 감축 정책 지원까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중추적인 기능을 맡는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8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총사업비 389억원(국비·지방비·민자 포함)이 투입돼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이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인 ‘탄소중립 에듀센터’가 들어선다.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해 국민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교육·체험·전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감도.

〈해남군 제공〉

기능을 통합한 국가 차원의 환경 학습 인프라로 구축한 해당 센터는 내년 60억원의 공사비가 확

보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해남군은 이들 두 국가 기관의 착공을 계기로 ‘농어촌 수도’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전남도 과수연구소를 통합 이전하고 인근에 약 100ha 규모의 ‘해남군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곳에 신품종 기술 개발, 농기계 등 관련 기업 유치,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 명실상부한 ‘기후 스마트 농업’의 메카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두 센터가 2028년 본격가동되면 해남군은 국가적 과제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해결의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라며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 기자

영광군 내년 1월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

ha당 66만원...농가 경영 부담 해소

영광군이 전남도의 예산 축소로 줄어든 위기에 처한 ‘벼 경영안정대책비’에 막대한 군비를 추가 투입하며 농가 지키기에 나섰다.

17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내년 1월 초 관내 벼 재배 농가에 ‘2025년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농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어민 전체를 고르게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재정 부담 조정을 이유로 2025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규모를 50% 대폭 삭감했다.

이에 쌀값 하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이라 판단한 영광군은 삭감된 도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군비 18억3천만원을 긴급 추가 편성했다.

영광 내 농가들은 내년 1월 초 예년과 다름없이 ha당 66만원(최대 2ha)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미곡 생산 위주의 농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이 지역 경제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농민들이 걱정 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 투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목포청소년문화센터 ‘동행·감사의 밤’ 개최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는 “최근 차명팩토리에서 동행·감사의 밤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의 성 인식 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해 헌신한 성교육 전문 활동가, 청소년 보호자, 후원자·지역사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연대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활동가 소진예방 체험 프로그램 ▲활동영상 상영 ▲우수 활동가 시상·감사장 전달 ▲석식 만찬·네트워크 파티 등이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서로 간의 협력과 소통으로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신안군 드림스타트와 국제와이즈멘 목포모란클럽, 바르세칼기운동 목포시협의회, 직공장 새마을운동목포시협의회 등 지역사회 단체들의 협력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전달했다. <사진>

장보운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현장의 따뜻한 연대가 더해질 때 비로소 청소년의 삶에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이 존중받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성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실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나주시 정부·광역 재난 안전 역량 평가 ‘4관왕’

여름철 재난 대책 광주·전남 유일 수상

나주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추진해 온 재난과 안전 정책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을 한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한 재난관리·안전 분야 주요 평가에서 안전재난과가 총 4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추진 우수기관, 하천과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 우수기관, 화랑호련 유공 등으로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에 이르는 재난관리 전 주기와 민방위, 자연환경 정비 분야까지 폭넓은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나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3개 부문 재난관리평가·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하천 및 계곡 정

비 수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재난관리 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추진 분야에서는 광주와 전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4관왕 달성은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점검 강화, 관계기관 협업 체계 구축,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 추진 등 나주시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안전 행정의 결실로 평가된다.

김윤명 나주시 안전재난과장은 “재난 안전 분야 4개 부문 동시 수상은 시민의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2026년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나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지난해 열린 강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산타원정대 시즌2 ‘산타가 쓴다!’에서 참가자들이 퍼레이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산타원정대 출범...“따뜻한 정 나눈다”

24일까지 어린이 1천100명 선물

거리 퍼레이드 등 나눔 분위기 확산

강진군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역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산타원정대’를 가동한다.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늘 강진군청 광장에서 ‘산타원정대 시즌3, 산타버스 대 작전’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출정식에는 읍·면 협의체 위원 100여명이 산타로 변신해 참석하며, 강진군 9호 아너소사이터티 회원으로 가입하는 이용기 성일축산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가입식도 함께 진행돼 나눔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출정식을 마친 원정대는 중앙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산타 행사를 가진 뒤, 강진읍 중앙로 일대(뚜레쥬르·카페베네)에서 거리 퍼레이드를 펼친다. 퍼레이드와 출정식은 군민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다.

산타원정대는 이날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까지 11개 초등학교와 2개 아동시설 등을 방문한다. 이들은 총 1천100여명의 어린이에게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며 꿈과 희망을 심어줄 계획이다.

군은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이날 오후부터 군청 광장에 ‘산타버스’를 주차해 군민들을 위한 이색 크리스마스 포토존으로 운영한다.

강진군 관계자는 “산타원정대가 전하는 선물 이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어른들에게는 나눔의 기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영암도기박물관 수강생

작품전 ‘흙의 선, 손의 결’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50점 선포

영암도기박물관이 한 해 동안 도예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특별한 전시를 마련했다.

17일 영암군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1일까지 박물관에서 ‘영암도기 교육생 전(展) : 흙의 선(線), 손의 결(結)’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생활도예교실, 도예동아리, 전문도예반 등 3개 과정 수강생 30명이 지난 1년 동안 흙과 씨름하며 빚어낸 50여점의 작품을 관람객과 나누는 자리다.

전시 주제인 ‘흙의 선, 손의 결’은 물레 성형과 조형 과정에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선’과 교육생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결’을 의미한다.

흙 위를 스치는 손길마다 다른 흔적이 남듯, 수강생 저마다의 속도와 리듬으로 성장해 온 과정을 작품을 통해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일상의 온기’ 전시에 이어 올해는 생활 도자부터 조형물까지 작품의 스펙트럼을 한층 넓혔다.

전시장은 초급 과정인 생활도예교실 수강생의 따뜻한 작품부터 중급 도예동아리의 자유로운 발상, 고급 전문도예반의 정교한 물레 성형 작품까지 다채롭게 구성됐다. /영암=나동호 기자



함평군 나비어울림센터, 도시재생 거리축제 연다

내달 11일까지 금·토 주민 기획 공연

함평군의 도시재생 거점 공간인 ‘나비어울림센터’가 겨울 밤을 아름다운 빛으로 수놓는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내년 1월11일까지 나비어울림센터 광장 일원에서 ‘2025함평 겨울빛축제’와 연계한 ‘빛으로 물드는 함평읍 도시재생 거리축제 한마당’을 개최한다. <사진>

이번 축제는 행정과 주민이 협력해 원도심을 밝히고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 기간 센터 광장에는 화려한 경관 조명과 이색적인 빛 조형물이 설치돼 낭만적인 연말연시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히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이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풍성

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축제의 주 무대인 ‘나비어울림센터’는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앵커 시설이다.

이곳에서는 공유 부엌, 공방, 문예 교실, 어린이 작업실 등 다양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 공동체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센터의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지난 5일에는 센터 내에 ‘청년센터’가 문을 열고 GTQ 자격증반, 일러스트·포토샵 실무 교육 등 청년 창업 지원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나비어울림센터가 주민 주도의 문화·소통 공간으로 확실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